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29.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김 영 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정 향 미 이 성 은	전 화	044-203-2811 044-203-281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과 장 담 당 자	정 인 보 강 정 혜	전 화	064-710-2910 064-710-2936
강원도 안전총괄과·관광마케팅과	팀 장 담 당 자	박 기 철 주 남 석	전 화	033-249-2774 033-249-3819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1팀	팀 장 담 당 자	오 진 희 양 진 혁	전 화	044-202-3711 044-202-37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연휴 대비 안전관광 방안, ▲연휴 기간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 ▲연휴 대비 안전관광 방안, ▲연휴 기간(4.30~5.5) 대비 제주도,
강원도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 ▲소규모 출장기업 베트남 특별
입국 추진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19일 총선 이후 2주간 큰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휴 기간에도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국민께 지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는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1 연휴 대비 안전관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행자·사업주들이 여행 경로*별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마련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 * 이동수단 → 휴게소 → 관광지 → 식당 → 체험활동 → 쇼핑 → 숙박 등
- 여행객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기 등이 있으며, 개인용 식기에 음식 덜어 먹기 등 상황별 수칙도 제시한다.
- 연휴 기간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는 관광지 현장에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해 방문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 또한 각 지역에서는 시설 예약제 도입, 관광지 내 한 방향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드라이브 스루)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여,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 연휴 기간 대비 코로나19 방역 대책

□ 연휴 기간(4.30~5.5)을 맞아 강원도, 제주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연휴 기간 중 강원도에는 지난해의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에 약 18만여 명(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연휴 기간(4.30~5.5) 중 속초, 강릉 지역 숙박시설 예약률 97% 수준

□ 강원도는 외부 유입이 많은 터미널,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2.28~)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휴를 대비해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속도로 휴게소 5개소, 버스터미널 22개소, 기차역 12개소 열화상 카메라 설치, 시내·외 버스 1,331대, 택시 5,287대 소독 실시

○ 주요 관광지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이다.

- 마스크 착용과 2미터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관람객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동선을 표시하고 구역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 또한,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 개인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독과 입장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업체(현재 약 2,100여 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 위주로 진행했던 특별입도절차 시즌1(3.24~)에 이어 검역시스템을 강화한 특별입도절차 시즌2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고, 관광지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관리한다.
- 제주공항에서는 내일(4.30)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하향(37.5 → 37.3℃)해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 내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 * (기존) 최근 14일 내 해외 입국자 → (향후) 해외 입국자 + 발열 증상자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목적 음·양압 검체 채취 부스(일명 '초스피드 워크스루') 2대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사를 실시한다.
- 제주도는 유관기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873개 관광사업체에 대한 방역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방역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하였다.
 - 또한 렌터카 대여 시 방역 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내 관광지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등 관광객 개개인의 방역 노력도 강조한다.

3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4월 30일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경북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16개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 이후 환자 감소를 고려하여 16개 센터를 단계적으로 종료해 왔고, 4월 30일까지 마지막 2개소*가 종료되면 모든 대구·경북 생활치료 센터 운영이 종료된다.

*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경증·무증상 환자는 시설에 별도 격리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다.

* 해외 주요 언론사(NHK 등)에서 다수 관심

- 그간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3,037명의 환자(4.27. 기준)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며, 이는 대구·경북 환자 중 완치된 사람(7,000여 명)의 약 42%를 차지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2개소에 남은 환자(72명, 4.27 기준) 모두 4월 29일까지 병원으로 이송하여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의료진과 현장 근무 인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편,

- 생활치료센터를 위해 기꺼이 시설 사용에 협조해 준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LG), 종교계(카톨릭 대구대교구), 금융기관(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 학교(경북대, 서울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앞으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시설·인력기준, 환자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고 보급하여, 앞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